

의료의 디지털화, 디지털 헬스케어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3>에서는 ICT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 크게 주목받았다. 원격의료부터 디지털 치료제, 스트레스 완화와 정신 건강관리, 피트니스 등 헬스테크 혁신 기술을 담은 제품이 대거 출품되며 관련 주요 기술이 빠르게 발전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헬스케어 산업의 빠른 성장 배경에는 팬데믹과 전 세계 인구의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크게 높아진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다. 평소에도 스스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확인하고 싶은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개인 맞춤 진단과 치료, 건강관리법 등을 디지털 헬스케어 방식으로 제공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며 관련 산업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진단과 치료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 의료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ICT 기반의 신개념 의료 서비스가 등장하며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 화상으로 진료받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처방받는 시대, 디지털 헬스케어 트렌드를 짚어본다.

글 편집실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전망



2020년 1,525억 달러
→ 2027년 5,088억 달러(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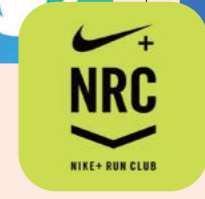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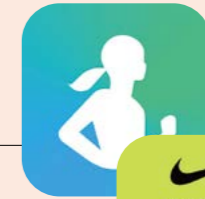
**연평균 성장률
18.8%**

*자료 :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Global Industry Analysts, 2020)

우리나라 디지털 헬스케어 이용 현황

1위
삼성헬스
(469만 2,751명)

2위
워크온
(74만 명)



3위
나이키 런 클럽
(48만 명)

*2022년 11월 1주 차 기준

디지털 헬스케어란?

개인의 건강과 의료에 관한 정보, 기기, 시스템, 플랫폼을 다루는 산업 분야로 건강 관련 서비스와 의료 IT를 융합한 종합 의료 서비스다. 쉽게 말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건강관리를 돕는 것을 뜻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대표 영역

의료 빅데이터

건강 및 진료 정보 등 수집 분석 활용.

비대면 진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온라인 비대면 진료 전환.



디지털 치료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치료용 의료 기기.

의료 메타버스

확장 가상세계를 진료·연구·교육 분야에 활용.

우리나라 첫 번째 디지털 치료제



애플리케이션 '솜즈'

불면증 환자를 치료하는 인지행동 치료 기법에 기반한 소프트웨어 의료 기기. 수면 습관 교육, 피드백, 행동 중재 등 6~9주간 수면 효율을 높여 불면증 증상 개선.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신조어

디지털 테라퓨틱스 (Digital Therapeutics)

질병의 예방과 관리, 치료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테라피로 IT 기술, 원격진료, 의약 기술의 융합으로 탄생한 독립적 기술 분야.



페멕 (Femtech)

여성(Femal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여성 건강 관련 상품과 기술, 서비스를 일컫음.